

One pick

찾이슈



방송인 이금희와 가수 이선희(왼쪽부터)가 KBS 2TV 새 여행프로그램 '한 번쯤 멈출 수밖에'를 통해 전국 방방곡곡으로 여행을 떠난다. 사진제공 | KBS

‘20년 절친’ 이금희&이선희의 감성 흐르는 여행 다큐 어게인

‘한 번쯤 멈출 수밖에’ 정규프로 편성...6일 첫방

말 잘 통하는 두 언니가 다시 만났다. 가수 이선희가 그의 절친인 방송인 이금희와 감성 여행을 떠나 화제를 모은 다큐멘터리 ‘한 번쯤 멈출 수밖에’가 정규 편성되어 시청자들과 만난다. 지난해 추석 연휴 파일럿으로 방 송한 ‘한 번쯤 멈출 수밖에’는 일상의 분주함과 소란에서 잠시 떠나 자신을 발견하는 여행 프로그램이다.

두 사람은 KBS2TV 6일 첫 방송에 앞서 5일 오후 2시 온라인 제작발표회를 열고 여행이 주는 위로 등을 잔잔하게 이야기할 예정이다.

제작진은 “40년 가까이 한길을 걸어오며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된 두 사람이 ‘절친’이 된 지 20년이 넘었다”며 “두 사람이 써 내려갈 이야기가 한 편의 에세이 처럼 물 흐르듯 시청자들에게 전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작사가 김이나, 약무(AKMU)에 이어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길동무들의 출연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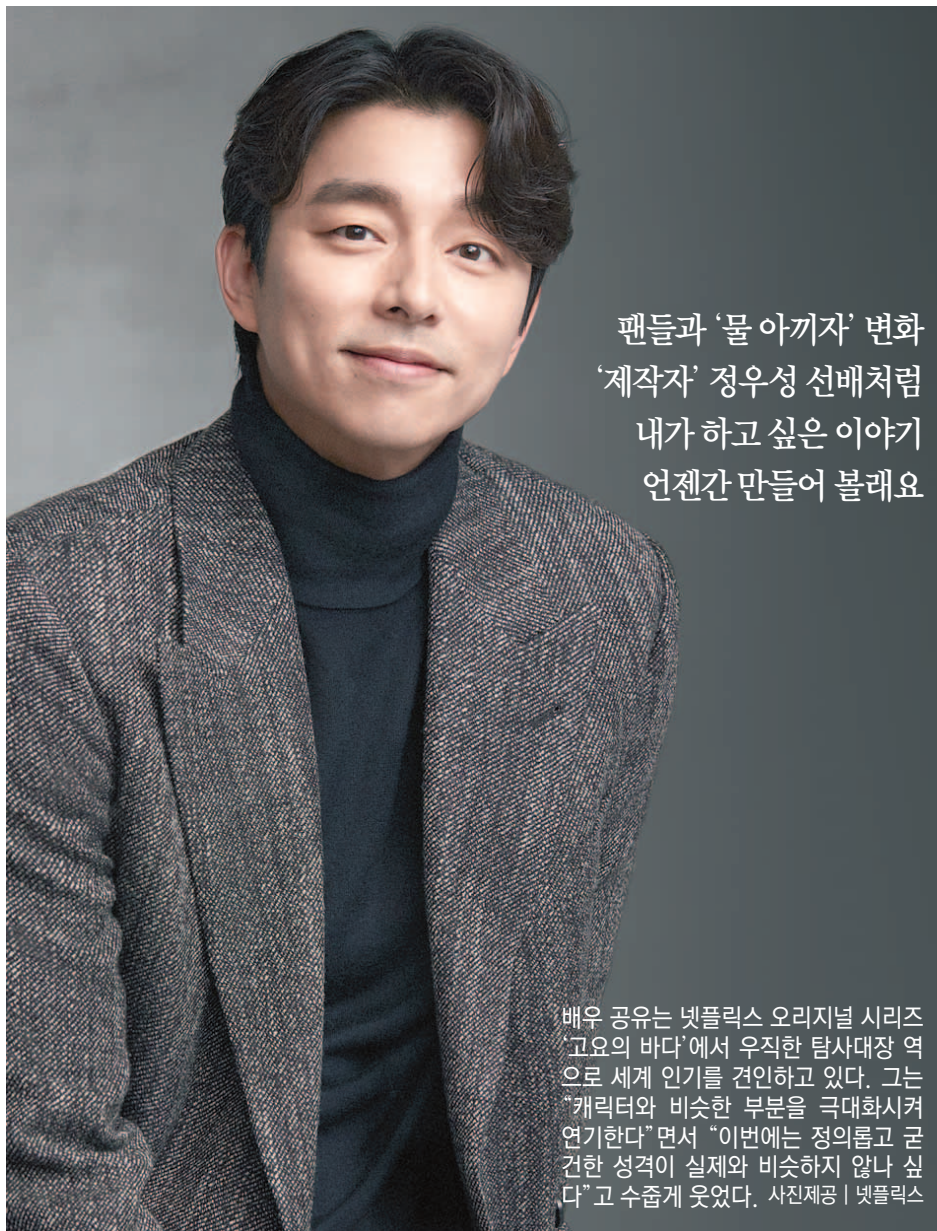
두 사람의 이야기와 함께 펼쳐지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길은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넷플릭스 ‘고요의 바다’ 공유

“‘지루하다’ 예상했던 흑평...‘작은 변화’에 뿌듯”



팬들과 ‘물 아끼자’ 변화 ‘제작자’ 정우성 선배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언젠간 만들어 볼래요

배우 공유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고요의 바다’에서 우직한 탐사대장 역으로 세계 인기를 견인하고 있다. 그는 “캐릭터와 비슷한 부분을 극대화시켜 연기한다”면서 “이번에는 정의를 굶겨준 성격이 실제와 비슷하지 않나 싶다”고 수줍게 웃었다. 사진제공 | 넷플릭스

“볼모지에 내딛는 첫걸음.”

배우 공유(42)는 최근 주연해 넷플릭스로 공개한 오리지널 시리즈 ‘고요의 바다’를 그렇게 표현했다. 한국 드라마 최초로 달을 배경으로 한 SF 드라마이기 때문이다. 그는 냉철한 탐사대장 한윤재 역을 맡았다. 심각해진 물 부족 사태의 해결법을 찾고자 우주생물학자 배두나 등과 우주를 누볐다.

“쉽지만은 않은 도전이었어요. 무거운 우주복을 입은 채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부딪히는 액션 장면을 소화하려니 힘들었죠. 그래도 결과물이 정말 만족스러워요. 한국에서는 볼모지나 닥터스 같은 우주 SF 드라마의 첫걸음치고는 꽤 훌륭했다고 믿어요.”

드라마는 신선하다는 평가를 얻으면서 2일 현재 넷플릭스 ‘세계 가장 많이 본 TV쇼’(프로그램) 4위(플릭스패드를 집계)에 올랐다. 그러나 지루하다는 흑평도 함께 쏟아졌다. 공유는 “집착한 반응”이라고 덤덤하게 말했다.

“SF 장르 특성상 작품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양한 만큼 각기 다른 반응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어요. 다만 저에게는 과학을 소재로 하면서 인문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드라마가 매력적이었어요. 기술이 인류의 희망과 급단의 열매가 동시에 될 수 있다는 모호한 지점을 잘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물 부족 사태를 다루면서 “사워할 때 물을 잠그는 습관”까지 생겼다. “팬들도 물 아끼자는 생각을 했다더라”면서 “변화를 이끌어 참 뿌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변화’에 대한 의지는 그동안 꾸준히 드러내왔다. 청각장애인학교의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여성들이 겪는 성차별을 담은 ‘82년생 김지영’ 등이다.

“배우로서 직접 목소리를 내기보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의 일부가 되는 게 최선이라 여겨요. 기록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라면 역할의 크기에 상관없이 출연하죠. 언젠가는 ‘고요의 바다’를 제작한 정우성 선배처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우성 선배의 열정에는 못 미치겠지만요.”

주·조연 가리지 않은 덕분에 지난해 세계를 휩쓴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에도 승선했다. 주인공 이정재를 게임에 끌어들이는 ‘딱지맨’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연출자 황동혁 감독과 친분으로 우정 출연한 게 “2021년 가장 잘한 일”이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시즌2를 한다는데 어떻게 될까요? 황 감독님이 아직 아무런 얘기 안 하시던데요. 저는 언제나처럼 친분과 관계없이 오로지 시나리오 하나만 보고 판단할 겁니다. 하하하!”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이정재 “오겜 시즌2...성기훈의 감정 더 뜨거워질 것”

(이정재 역)



배우 이정재

2021년, 배우 이정재는 그 누구보다 바쁘고 화려한 시간을 보냈다. 주연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세계적 인기가 현재 진행형인 이 순간, 2022년을 맞이하며 시즌2 제작에 이어 최근 시즌3 제작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열풍의 주역인 그에게 자연스럽게 시선이 쏠리고 있다. 또 남우주연상 후보 부문 등에 오른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10일(한국시간) 다가오면서 하루하루 최고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는 “한국의 콘텐츠로 대한민국의 문화를 알리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뜻 깊은 한해였다”며 지난해를 돌이키더니 “다양한 팬들의 응원을 받게 된 것이 가장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오징어게임’이 안겨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했다.

이정재와 ‘오징어게임’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열리는 골든글로브와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 등 주요 시상식 후보에 올랐다.

해의 각종 매체 등에서는 그의 수상도 기대하고 있다. 정작 그는 세계적인 인기 등으로 얻어지는 성과에 대해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 짐작할 수도 없다”고 했다.

“주위에서는 시상대에 오른다면 어떤 소감을 남길 거냐고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그조차 상상하기 어려워 소감을 떠올리기가 어려워요. 뭔가 멋진 말을 준비하고 싶

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느낀 그대로의 소감이 더 값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수상에 너무 기대하는 것 같아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하하하!”

지난달 시즌2 제작이 공식화된 데 이어 최근 시즌3 제작도 추진 중이라고 알려지면서 또 한 번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정재가 시즌2에서 어떤 식으로 등장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황동혁 감독님의 예상을 뛰어넘는 스토리와, 성기훈의 감정이 훨씬 더 증폭된 이야기 안에서 강렬한 뜨거움을 기대할 뿐이에요.”

이정재는 배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최근 배우 정우성과 설립한 아티스트컴퍼니를 통해 게임 업체 컴투스 및 자회사 위지윅스튜디오와

손잡았다. 최근 컴투스는 아티스트컴퍼니의 경영권을 1050억원에 인수하는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지금과 똑같은 회사 체제로 운영이 될 것이며 앞으로 더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좋은 기회가 더 생겼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연출 데뷔작 ‘헌트’ 개봉도 앞두고 있다. 그는 앞서 배우로서 쌓아온 경험이 연출 데뷔에 나선 계기가 됐다고 했다.

“솔직히 너무 많은 것을 얻게 돼서 문장으로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사람들과의 소통 방식, 소통하기에 앞서 이해의 폭, 역시 영화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영상 언어이기 에 모든 스태프 한 분, 한 분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되었죠.”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명품 골프 반집업니트 초특가 파격 세일!! 2점 49,800원

영상의 날씨에는 점퍼대용으로, 영하의 날씨에는 점퍼안 가벼운 세컨니트로!

2022 BEST



1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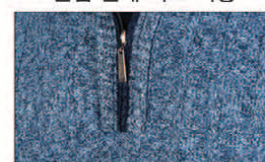
5



밑단 쫄쫄한 시보리 적용



안감 전체 기모 적용



세련된 지퍼 적용

따뜻하고 실용적인 디자인

디자인에 반하고, 따뜻함에 또 한번 반하게 될 전천후 니트. 폴리에스터100% 안감기모로 내추럴한 디자인에 안감 기모가 더해져 실용적이고 따뜻하게 착용할 수 있다.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디자인

모던하고 클래식한 디자인과 디테일로 당신의 몸을 포근하게 감싸준다. 신축성과 활동성이 높아 착용감이 좋으며, 탄탄한 조직감의 소재로 제작. 오랫동안 착용해도 변형이 없다. 소매부분 팽팽한 시보리 제작.

디테일을 살려 탁월한 핏감

실한을, 정교한 디테일, 구조적 형태를 위해 노력했다. 지루하지 않은 유행이 없는 센스와 소매의 트임, 딱 떨어지는 어깨선, 입체감 있으면서 자연스러운 표현. 겨울 골프웨어 느낌의 스포티한 기능성, 실용성을 결합하여 세련된 넘치는 룩을 지향한다.

사이즈 95, 100, 105
판매가 2점 428,000원- 49,800원 (배송비 3,000원 소비자부담)
3점 492,000원- 74,700원 (배송비 무료)

입금계좌 <농협> 301-0217-7784-41
예금주 (주)원프로튼
쇼핑몰 www.OPTOP.co.kr
문의전화 1644-3606